



# 출판윤리의 최신 경향

함 창 곡  
(의편협 출판윤리위원장)

2005년부터 이중게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에도 회원학회로부터 질의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2005년 하반기 당시 의편협 평가위원장인 홍성태 교수가 “중복출판과 이차출판의 차이와 학문윤리”라는 주제의 글을 의편협 소식지와 대한의학회 회보에 기고하였고, 2006년 3월 총회 워크숍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후에 문제의 심각성을 회원학회에 알리기 위하여 2006년 4월 3일 “중복출판(이중게재)에 대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입장”을 전체 회원학회에 발송하여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이 후 처리하기 어려운 이중게재 사례가 발생되면서 2006년 6월 의편협 내에 출판윤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되었다. 출판윤리위원회 구성 후 2006년 6월 19일 의편협 박찬일 회장 명의로 논문 취소 방법에 대한 안내 서한이 발송되었고, 2006년 9월 회원학회 편집인을 대상으로 출판윤리 교육을 위한 의편협 워크숍이 진행된 바 있다.

2006년 7월 11일, 대한의학회 김건상 회장은 “의학 논문의 이중게재/중복출판에 관한 대한의학회 공식 입장”을 전 회원학회에 발송하여 출판윤리에 대한 대한의학회의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2007년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2008년 3월 발간되었다.

2007년 10월경 KoreaMed에 등재된 논문 중 2004년에 출간된 9,03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중복출판의 빈도 조사가 시행되었다. 9,030편 중 무작위로 5%인 455편을 추출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중복출판 의심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은 사서가 KoreaMed, Google Scholar, PubMed 등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의심이 있었던 논문이 47편이었고 조사연구를 진행했던 한림의대 김수영 교수와 의편협 출판윤리위원장인 함창곡 교수, 간사 경희의대 배종우 교수 3인이 판정에 참여하였다. 일차 판정은 초록을 이용하였으며, 초록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 본문을 구하여 판정하였다. 판정의 기준은 (1) 가설이 유사하다. (2) 대상이 같거나 유사하다. (3) 연구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4) 결과가 유사하다. (5) 저자 한 명 이상이 동일하다. (6) 새로운 정보가 없거나 적다. 였다. 중복출판 여부는 3인 중 2인 이상의 의견으로 확정하였다.

초록으로 확인된 논문이 21편, 본문으로 확인된 논문이 6편으로 의심 논문 455편 중 27편(5.93 %)이 최종적으로 중복출판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Duplicate publication in Korean medical journals indexed in KoreaMed”라는 제목으로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지에 2008년 1월호에 게재되었고, 이어 New English Journal of Medicine에 “Abstract from Medline”으로 수록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공개되었다.

2005년 11월 황우석 전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이 사회에 노출되어 세계적으로 연구윤리 문제를 부각시켰고, 2006년 의편협에 출판윤리위원의 구성,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교육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각 회원 학회별로 출판윤리에 관한 자체 세미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의편협에서는 중복출판에 관한 빈도 조사를 계속하여 추이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1차 연구와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이며 연구 내용은 최종 결과물만 발표하기로 하였다.

2009년 10월 시작한 제 3차년도 조사연구도 마무리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진행 중인 사례집 제작을 위한 유형 분류의 경험을 얻기 위하여 판정을 맡은 3인이 최종적으로 모여 의견에 차이가 있었던 논문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이 제정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편협에는 지속적으로 질의가 접수되고 있으며 판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복출판 사례집”을 계획하고 있다. 문제점은 무작위로 추출된 자료에서 얻어진 사례를 노출시킬 수 없어 실제 사례는 수록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같은 유형으로 논문을 개작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매 년 조사는 당해 연도에 출간된 논문이 출간 전과 출간 후 조사 시기까지 중복된 경우를 조사하고 있어 출간 후 중복은 해당 연도에 다시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자료 정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오늘 보고에서는 주로 판정에 이견이 있었던 사례들을 소개하려고 한다.